

우리 모임에선

윤병협 법륜기법 전국대회

대한불교윤병협총본부(회장 자원스님)는 16일 오후 1시 조계사에서 제29회 세계 불교도 법륜기수어 전국윤병협 대회를 개최한다.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생, 대학원생까지 참여할 수 있다. 원고는 부처님이 오신 의의 및 불교사상 고취, 성지보호 및 불교문화재 보호 육성 방안, 정법수호 사상 등을 고취하는 내용이면 된다. (02)735-1896

수원교도소 지장상 점안

수원교도소 직원불심회(회장 고광식)는 20일 오후 1시 수원교도소 운동장에서 지장보살 입상 점안식을 갖는다.

용주사 정락스님의 법륜과 함께 봉행되는 이날 점안식에는 재소자 2백50여 명과 직원 불자 50여 명 등 3백여 명이 참석한다. (0331)211-1285

유동동 서울경기법회

유니텔불교동호회 서울·경기지역모임(지역장 오기성)은 19일 오후 7시30분 법륜사에서 지역법회를 갖는다. 5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할 이날 법회에서는 법륜사 주지 보경스님이 법륜한다. (02)390-5717

충북예비역 3사 순례

충북예비역불자회(회장 이만호)는 25일 3사 순례를 떠난다. 예비역불자 회원 및 직원가족 50여 명이 셋째사, 칠불암, 화엄사를 순례한다. (0431)276-6812

과천 정릉회 법화경 강좌

과천정릉부총합장사 정릉회(회장 강광수)는 14일 정오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청사내 상강실에서(법화경) 강좌를 연다. 평생불자회 김정호 법사의 진행으로 열리는 이날 강좌는 정릉회 회원들이 지난 해부터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을 통해 실시해 오고 있는 정기법회와 더불어 마련된다. (02)502-3005

대우범 범우회 정기법회

대우자동차범우회(회장 권영남)는 16일 경릉스님이 주석하셨던 봉도사 극락암을 찾아 정기법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법회는 분기별 실시해 오던 성지순례를 겸한 것으로 일일 회원을 참여하는 회원가족들과의 친목을 도모하고 신심을 고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051)811-4152

수도권 불자의사모임 만든다

능인선원 불교대 출신 10여명 추진 건강강좌·무료진료등 자원봉사

서울·경기 불자의사들의 실행모임이 결성된다. 의술(醫術)을 전법(傳法)의 방편으로 삼는다는 뜻을 같이한 서울·경기 지역 의사(한의사 포함) 10여 명이 '서울·경기 불자의사모임(가칭)' 출범에 앞서 불자의사들을 규합하기 위해 수소문해 나섰다.

분당 오한의원 원장, 산본 김양식 한의원 김양식 원장, 황경식 한의사, 삼성의료원 비노기과 최한웅 전문의, 고려대 구로병원 신부인 과 조수용 전문의, 한강성심병원 성형외과 서인석 전문의, 최필성치과 최필성 원장, 김치환 김영구 한석만 김판성 개업의 등이 그 주인공. 이들은 모두 능인선원 불교대학 도반

들로, 지난해 5월 결성된 '능인선원 불교대 출신 10여명 추진 건강강좌·무료진료등 자원봉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경기 불자의사모임을 준비해 왔다.

서울·경기 불자의사모임은 부산 불교의사모임에 이어 교계에서는 두 번째 불자의사모임이지만 친목모임인 부산불교의사모임과는 달리 순수 자원봉사활동을 지향하는 불교계 첫 '불자의사 자원봉사단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최필성 치과원장은 "수천년의 불교역사 속에서도 불교가 대중 깊숙

히 파고 들지 못하는 것은 '나'만의 성불, 해탈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들의 거러운 곳을 끊어 주고 보살과 주면서 이웃과 함께 호흡하는 가운데 불교의 사회화는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최 원장은 "서울·경기 불자의사모임은 의사들이 이웃을 위해 전문지식을 나누며 부처님 자비사상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며 불자의사들의 많은 동참을 기대했다.

서울·경기 불자의사모임은 출범에 앞서 23일 강남 구름마을을 찾아 의료자원봉사활동을 벌이며 공식 출범 일정 및 구체적인 활동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구미 금오종합사회복지관 개관

구미 금오종합사회복지관(관장 법등스님) 및 부설 연꽃어린이집이 4월29일 개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비롯 중앙총회 의장 법등스님, 구미시암련회장 경우스님, 법주사주지 혜광스님, 남구종합사회복지관장 지도스님, 김은환 국회의원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 이병준 제8교구신도회장, 김관용 구미시장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불교복지보건대학 개교 기념법회

불교복지보건대학(학장 혜도)이 4월30일 개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범어사 주지 성오스님, 정각 미륵사 주지, 안영일 부산진구정당을 비롯 교수, 학생 등 2백여명이 동참했다.

불교복지보건대학은 5월 4일부터 첫수업을 가지고 황보선 교수, 강동근교수의 열강으로 불교와 보건, 복지가 병행된 참배움, 참실천의 장을 열었다.



제4회 현대불교문학상 시상식

제4회 현대불교문학상 시상식이 1일 대한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양산스님(조계종 문화부장), 청화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장), 원혜스님(봉은사 주지), 시인 최동호, 니해주, 송수권씨, 김재홍교수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여한 이날 시상식에서 시인 고은씨가 '묘향산'으로 현대불교문학상을 수상했다.



서울경찰청 경승실 삼존불 점안

서울지방경찰청 경승실(실장 동공·도선사 주지)은 7일 15층 대법당에서 '대웅전 개축 및 삼존불 점안식'을 거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태고종 승정 송암스님, 서울지방경찰청 이무영 청장, 민승기 차장, 서울경찰청불교회 김관오 회장과 불자회 회원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무영 청장은 이날 동공스님에게 "경승실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끼쳤다"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심상 사진예술로 불심알리기 10년

전시회 열고 사진집 펴내 노인 초상 촬영등 봉사도

따스한 봄 햇살을 조영삼아 고즈넉히 서 있는 탐, 스님의 기도하는 모습, 신비로운 전설을 감동 듯 고요한 천년고찰. 말로서 그 아름다움과 의미를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산사를 한 컷의 사진은 훌륭하게 전한다. 부천 석왕사 사진동우회 '심상(心象, 회장 강항숙)'이 사진이라는

백명영. '심상'은 전시회뿐만 아니라 우수작을 선별해 '20인의 불(佛)' '종택의 울림' 등 작품집으로 엮어내고 있기도 하다. 올해도 19일~23일 석왕사 전시실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전시를 갖고, 사진집 (11인의 불)을 선보일 계획이다.

'심상'은 여름이면 수해 복구 작업에 나서고, 이웃에 애·경사가 있을 때 사진촬영을 도맡아 하는 등 이웃과 함께 한다. 또 매



심상은 창립 이후 전국 사찰을 찾으며 불교문화를 사진에 담아 포교에 나서고 있다.

시각적인 언어로 불교문화를 알리기 시작한 지 올해로 꼭 10년을 맞았다.

89년 10월 석왕사를 거점으로 주부들이 주축이 돼 결성된 '심상'은 그동안 사찰, 건축, 문화재 등 불교문화를 기록·발표하고, 전시회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홍보사절단으로 비종있는 활동을 펴 왔다. 배출된 회원만도 1

년 백종 하면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의 초상사진을 찍어주며 맡 없는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강항숙 회장은 "심상은 부처님 참법을 담은 사진, 잊혀진 불교문화를 되살리는 사진을 찍어 불법의 깊은 맛을 전하자는 데 창립취지가 있다"며 마음 속 깊은 심상을 일깨워 주는 불교적 소재들을 담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금강에 아리 회원들과 군불자들이 합동법회를 가진 후 한 자리에서였다.

군불자 7백여명 합동법회 금강메아리산악회...철원 5·6사단 위문

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회장 운부운)는 2일 철원 5사단 호국비룡사와 호국정토사를 방문하고, 호국비룡사에서 불자군정병 7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법회를 가졌다. 이어 지난해 수해로 목숨을 잃은 군정병들을 위해 천도재를 봉행했다.

금강메아리 운부운 회장은 "국방의 의무를 거둔다 수행하고 있는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불자장병으로서 국민된 도리를 다하고 부처님 자비사상을 널리 퍼는데 앞

장 서 달라"고 말했다. 혜명 지도법사는 "부처님오신 뜻을 다시금 되새겨 언제 어디서든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강메아리는 5사단 법회에 이어 6사단 청룡사에 들어 군정병들에게 합장주, 불사, 초코파이, 음료수 등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또 도덕안사, 철원 노동당사, 월정리 역사, 통일전망대 등을 순례했다.

국방과학성 불교회 인터넷사이트 개설

국방과학연구소 불교회(회장 운동수) 홈페이지가 개설됐다. 지난달 사내 인터넷에 '성불교회' 홈페이지를 임시 개설한 후 한달여 동안 수정작업을 거쳐 1일 공개했다.

성불교회 홈페이지는 △절로 가는 길 △법문과 수행 △기초교

리 △경전 △의부 사이트 안내 △게시판 등 6개 방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방에서는 사찰소개에서부터 금강경, 법구경 등 경전 내용, 큰스님 법문, 회인 및 일반 불자들의 수행일기, 예불문, 기도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특징별, 부분별로 소개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사내 LAN을 통해 운영되는 관계로 국방과학연구소 내에서만 방문 가능하다. (042)921-4414

대한불교무량종 창종선포문

본종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교조로 자각 각타의 행원을 근본 교리로 삼고 수행정진으로 견성성불 전법도생을종지로 대승불교 사상과 이념을 구현, 자비실천을 모체로서 사회복지 및 봉사정신으로 시대적 사명감과대원력을 세워 모든중생을 교화하고자 창종을 선포합니다.

불기 2543년 4월 1일 목요일

◎ 창종대표 : 령 관 (태순) 전파용 (현용)

무량종 총본산 삼각산하 무량정사

●주소 : 종로구 홍지동 76-2 ●전화 : 3216-1600 / 3217-1600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할(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원(배꼽)에 착용하면 방향향음료의 성분이 신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을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임마의 태중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원(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몸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땀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기미가 두통까지 걸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년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원)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통이 사라졌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사라져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민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조구 김미선)

- 매당되는 증상(0)이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나 신경성이 없다. 7. 두통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는 편이다. 12. 피로감을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뻣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감성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는 문은 즉시 진찰하세요.

고려물산 한국향연구회 080-200-4545, 02)755-9821